

## 몰트만의 사랑의 윤리와 평화윤리를 위한 규범적 함의 모색\*

이창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몰트만의 사랑의 윤리

1.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모범
2. 사랑에 대한 창조론적 삼위일체적 이해
3. 하나님 사랑의 길
4. 생명에 대한 사랑

### III. 몰트만의 평화윤리를 위한 규범적 함의

1. 이타적 자기희생과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 그리고 평화를 위한 혁명적 전환
2. 생태적 차원의 평화윤리
3. 공동체지향적 총체적 평화의 모색

###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1.10>

\* 이 논문은 2025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 ABSTRACT •

---

Moltmann's Ethics of Love and the Exploration of its Normative  
Implications for his Ethics of Peace

Prof., Lee, Chang-Ho (Presbyterian Univ. and Theological Seminary)

In his Christian ethical discussion on love, Moltmann reflects on the life and teachings of Jesus Christ, the immanent and economic understanding of the love of the Trinity, and the way of loving God. Moltmann's peace ethics is deeply connected to his ethics of love, with the latter serving as the core normative foundation of peace ethics.

The complete practice of love results in a community of peace. The ecological expansion of love is essential to realizing ecological peace, and love for natural, political, and social life forms the cornerstone of a holistic understanding of peace. Accordingly, this paper seeks to explore Moltmann's ethics of love and examine its normative implications for his peace ethics.

**Key words:** Jürgen Moltmann, Ethics of Love, Ethics of Peace, Theology, Christian Ethics

---

## I. 들어가는 말

현대 신학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사람인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기독교 신학이 존중해야 할 전통적인 신학적 신념이나 방법론과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현대의 변화와 도전에 적절하게 응답함을 통해 내향적으로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게 세워가고 외향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이 현대 사회의 동료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고 유효한 메시지로 전달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기여를 가능하게 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시대와 인류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몰트만의 강한 지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희망의 윤리』에서 빈곤, 테러, 낙태나 안락사와 같은 의료윤리 문제, 생태계 위기, 전쟁과 평화 등의 주제들에 대해 신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성찰하고 구체적인 실천적 대안도 제시한다.

몰트만에게 신학은 실천적인 학문이다. 이론과 실천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으며 실천이 결여된 신학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이러한 실천의 근본동기와 규범적 토대는 무엇인가? 사랑과 평화이다. 하나님은 세계의 존재들과 깊은 사랑의 사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와 본성을 나누심으로써 세계 가운데 구원과 섭리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며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에 동참케 하신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에 상응하여 사랑의 삶과 실천으로 응답해야 하는데, 몰트만은 사랑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논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재적 경제적 이해, 하나님을 사랑함의 방식 등에 대해 주목한다. 몰트만의 평화윤리는 그의 사랑의 윤리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규범적으로 후자는 평화윤리의 핵심적 토대가 된다. 사랑의 온전한 실천은 평화의 공동체로 귀결되고 사랑의 생태적 확장은 생태적

평화 구현에 본질적이며 자연적 정치사회적 생명에 대한 사랑은 총체적 평화 이해의 초석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몰트만의 사랑의 윤리를 모색하고 그것으로부터 그의 평화윤리를 위한 규범적 함의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몰트만의 사랑론을 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논구하고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모범, 사랑에 대한 창조론적 삼위일체적 이해, 하나님 사랑의 길, 생명에 대한 사랑 등을 주된 논점으로 삼을 것이다.<sup>1)</sup> 다음으로 몰트만의 사랑의 윤리에 근거하고 또 그것과의 연속성을 주목하면서 평화윤리를 위한 규범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핵심적인 함의로 이타적 자기희생과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 그리고 평화를 위한 혁명적 전환, 생태적 차원의 평화윤리, 공동체지향적 총체적 평화의 모색 등을 제안할 것이다.

## II. 몰트만의 사랑의 윤리

### 1.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모범

몰트만의 사랑의 윤리를 탐색함에 있어 성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에 대한 몰트만의 논의를 살피는 것은 필수적이다.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산상수훈(마태복음 5-7장)에 주목하며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윤리적 이상을 논구한다. 예수의 윤리적 가르침은 그야말로 이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충분히 도달할 수

1)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몰트만의 이해와 논의를 다음의 문헌에서 다루었다. 이창호, 『사랑의 윤리: 사랑에 관한 신학적 윤리적 탐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20), 34-38, 49-53; 이창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그 같음과 다름에 관한 신학적·윤리적 연구: 민중신학, 칼 바르트, 위르겐 몰트만 신학에 대한 윤리적 분석과 비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2 (2011), 286-93.

있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sup>2)</sup> 산상수훈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역사적 실존으로서 이 세계 속에서 구현해야 할 핵심적인 규범적 원리를 밝힌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과 평화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들에서 실천함으로 증오와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와 평화를 파괴하는 모든 폭력의 가능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sup>3)</sup>

몰트만은 폭력에 대한 저항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은 그 논의와 해석의 관점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을 내포한다고 평가한다. 곧 예수의 가르침은 “비폭력적인 [저항]이나 아니면 폭력적인 [저항]이나에 대한 작전적인 질문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응하는 義의에 관한 기본적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sup>4)</sup> 온전한 사랑과 평화를 규범적 이상으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윤리는 ‘하나님과 상응하는 의’에 대한 혁명적인 새로운 해석에 근거한다고 몰트만은 강조한다. “예수에게 있어서 <비폭력성>이란 표어 하에 열거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개념에 있어서의 혁명>에 기인하며, 이 혁명을 그는 다음과 같이 시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정당하게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열혈당원이든 아니면 세리이든,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죄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든...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sup>5)</sup>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과 삶에서 비폭력성에 대한 모든 이해와 실천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혁명적 인식의 전환

2) Jürgen Moltmann, *Der Weg Jesu Christi: Christologie in messianischen Dimensionen*, 김균진·김명용 역,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적 차원의 그리스도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88.

3) 위의 책, 188-95.

4)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Das Kreuz Christi als Grund und Kritik christlicher Theologie*, 김균진 역,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리스도교적 신학의 근거와 비판으로서의 예수의 십자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9), 150.

5) 위의 책, 151.

에 기인하며, 몰트만이 밝히고 있는 대로, 그 사랑은 모든 형태의 차별과 구분을 뛰어넘어 ‘모두’를 포괄한다.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규범적 명령을 내포하는 예수의 사랑의 윤리는 원수 사랑의 계명에서 명확하게 탐지된다. “원수사랑은 보상적인 (혹은 보답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지적이며 또 창조적인 사랑이다. 선으로 악을 갚기 위해서는 실로 자유롭고 강해야 한다. 원수사랑은 원수와 원수의 의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가 행동의 규범을 규정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sup>6)</sup>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원수 사랑의 계명은 근본적인 답을 준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라 하심은 사랑 못할 대상이 없다는 의미이며 사랑 못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모든 대상을 사랑하라는 뜻을 함의한다. 원수 사랑의 계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명령하실 뿐 아니라 모두를 품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원수 사랑의 계명에 내포된 보편성은 하나님 사랑의 넓이에 상응한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기에, 하나님 사랑의 보편적 범위는 그들이 존중해야 할 기준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 사랑의 가장 중요한 길들 중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존재를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몰트만은 하나님 사랑에 상응하여 인간의 이웃 사랑도 ‘모두’를 품는 보편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규범적 인식

6) Jürgen Moltmann, *On Human Dignity*, trans. M. Douglas Meeks (Philadelphia: Fortress, 1984), 126.

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sup>7)</sup>

## 2. 사랑에 대한 창조론적 삼위일체적 이해

몰트만의 사랑의 윤리를 모색함에 있어 기독교적 탐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과 삶에 대한 탐구뿐 아니라 창조론적 삼위일체적 관점에서의 탐구도 요청된다. 사랑의 모범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창조론적 삼위일체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몰트만은 하나님의 창조적 본성과 신적 생명의 동일시를 경계한다. 그러한 동일시가 유출설적 창조론으로 기울어져 생명의 본성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뒤섞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sup>8)</sup> 이렇듯 동일시를 경계하지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분리도 경계한다.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와 세계의 존재들을 객관화하고 초월적 존재로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창조의 결과로서의 세계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세계의 존재들을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범재신론적 세계 임재라고 할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개념이다. 범재신론은 한편으로 모든 것이 신이라는 내재론 곧 하나님과 세계의 동일시를 내포하는 내재론인 범신론과 다르며 다른 한편으로 창조자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계를 만드시고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셨기에 세계로부터 떨어져 계셔도 된다는 관념을 내포하는 이신론과도 다르다. 범신론적 동일시와 이신론적 분리를 경계하는 한편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견지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세계 임재를 통한 둘 사이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내재론이 몰트만의 범재신론이라고 할 것이다. 이

7) Jürgen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Eine ganzheitliche Pneumatologie*, 김균진 역, 『생명의 영: 총체적 성령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330-31.

8)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Ökologische Schöpfungslehre*, 김균진 역,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생태학적 창조론』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131-32.

러한 관계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 몰트만은 사킴(코이노니아)의 개념을 중시한다. 유출설적 범신론적 동일시를 경계하면서 몰트만은 신적 생명을 사랑을 본질로 하는 생명으로 보는데, 여기서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다. 하나님은 이 사랑 안에서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세계의 존재들과 더불어 친밀한 사킴의 관계를 이루신다.<sup>9)</sup> 이 사랑에 대한 몰트만의 창조론적 삼위일체적 설명을 들어보자.

창조적인 과정 속에서 그의 삼위일체적 완전성으로부터 한없이 나와 영원한 안식일의 휴식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오는 사랑을 말한다. 그것은 동일한 사랑이지만 신적인 삶과 신적인 창조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동한다. 하느님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구분과 함께 여러 가지 형식의 사킴 속에서 그의 내적인 신적 삶을 활동케 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사랑의 피조물들에게 그의 사랑도 나누어 준다. 이것은 인간을 그의 의지의 생산성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본성”에도(벤후 1,4) 참여하게 한다. 그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자들은 “그의 소생”에 속한다(행 17,28-29). 이것은 “신적인 본질의 유출”이라는 표현으로써 부적절하게 표현되지만 단순한 피조물성을 넘어서는 하느님과의 사킴을 시사하고 있다. 하느님의 피조물과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의 손의 작품이라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신적인 삶의 창조적인 근원에 ‘뿌리박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것은 특히 창조를 ‘성령론적으로’ 이해하고 그의 창조 안에 거하고 있는 창조자의 영을 고려할 때 분명해진다.<sup>10)</sup>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완전성’에 원천을 둔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과의 사킴을 형성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이다. 이 사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사랑을 나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와 본성에 참여케 하신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피조물이 피조

9) 위의 책.

10) 위의 책, 133.

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단순한 피조물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사귄에 참여하는 주체로 서게 하신다는 것이 몰트만의 생각이다.<sup>11)</sup>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의 의지와 활동의 몫을 나누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삶과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을 사랑하며 또 세계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과 섭리를 구현해 가는 데 이바지하게 하신다.

창조론적 삼위일체적 논의의 틀에서 볼 때,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인간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 사랑은 창조의 전체 지평을 포괄한다. 곧 온 세계와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며 동시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점은 구원론적 관점에서도 확고하게 뒷받침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는 전체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는 우주적 창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체 창조의 지평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새 창조'인 것이다.<sup>12)</sup> 인간의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여 창조하신 전인을 구원하신다. 세계의 구원의 관점에서 논한다면, 하나님은 인간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전체 세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 로마서 8장의 증언대로, 인간 뿐 아니라 인간 외의 다른 모든 피조물도 노예됨으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한다(21절).<sup>13)</sup> 이로써 보건대, 하나님은 인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포괄하여 차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자명한 결론에 이른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이러하다면 우리의 사랑도 그 범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상응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사귄이라는 사랑의 지향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피조물들과의 깊은 사귄을 지향

11) 위의 책.

12) 위의 책, 121-25.

13) 위의 책, 87-92.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피조물들과의 사랑의 사권을 향한 지향은 이타성이라는 규범적 방향성을 견지하면서 사랑의 과정에서 피조물들의 고유한 특성과 상황 그리고 사권의 관계에 참여하는 존재의 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몰트만의 생각이다.<sup>14)</sup>

사랑의 생태적 확장을 논함에 있어 몰트만의 ‘지배에서 공동체로의 회개’에 대한 강조를 주목할 만하다. 몰트만은 현대 서구 문명을 움직이는 근본적 힘이자 동기로서 ‘지배에 대한 의지’를 말한다. 동료 인간과 인간의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이 아닌 동료 존재들과 그들의 삶의 영역에 대해 위계적 구도에서 지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욕구가 현대 인류와 문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진단인 것이다. 지배의 의지에 사로잡혀 “현대의 서구 문명은 일방적으로 성장, 확장, 정복을 위해 계획되었고 힘의 획득과 힘의 보장은 현재 서구 사회에서 실제로 통용되고 모든 것을 규정하는 기본 가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sup>15)</sup>

안타깝게도 기독교 안에서도 인간의 정체성과 역할을 세계에 대한 ‘지배’로 이해하는 흐름이 어렵지 않게 감지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세계에 대한 지배권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에 터하여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지배와 종속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위계적 질서로 이해·정립하고자 했다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몰트만은 기독교 신학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한 생태적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방향성은 다름 아닌 ‘일방적 지배에서 상호간의 공동체로의 회개’이어야 할 것이다.<sup>16)</sup>

14) Jürgen Moltmann, 『생명의 영: 총체적 성령론』, 291-355.

15) Jürgen Moltmann, *Ethik der Hoffnung*, 광혜원 역, 『희망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36.

16) 위의 책, 137.

이미 그 이름을 통해 표현된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상에 거하는 고독하고 무감각한 지배자,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지배자가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관계를 맺으시는 공동체적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16). 고대의 삼위일체론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배와 예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와 생명을 장려하는 상호성(相互性)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상응해야 할 것이다. 고독한 인간 주체가 아닌, 참된 인간의 공동체가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 형상이다. 그러므로 개별적 부분이 아닌, 전체 창조 공동체가 하나님 형상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만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새로운 세계관이 형성된다. 하나님의 영이 전체 피조물 위에 부으신바 되신다면, 하나님의 영은 모든 피조물의 연합과 공동체를 위해 서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신다. 생명의 소통이다. 창조의 생명은 상호 간에 소통하는 창조 공동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호 간에 나누는 생명의 관계의 그물망은 ‘우주적 영’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sup>17)</sup>

창조하신 온 세계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한 신념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동등한 존재로 함께 일구어 가는 생태적 공동체를 지향하게 한다. 이러한 생태적 지향 안에서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적 대립적 관계 이해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몰트만은 한편으로 주객의 이원론 곧 인간의 ‘주체성’과 자연의 ‘객체성’이라는 이원론적 분리를 지양하고 둘 사이의 파괴적 상호작용을 경계할 것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과 자연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목적을 뚜렷하게 지향할 것을 권고한다. “분열을 공동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곧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문화와 자연의 상호성에 기인한 공동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sup>18)</sup>

17) 위의 책, 137-38.

### 3. 하나님 사랑의 길

몰트만에 따르면, 사랑은 “영원 전부터 자기를 전달하는 선(善)”이다.<sup>19)</sup> 사랑이 이러하다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지속적으로 타자를 향해 자기 자신을 전달하신다. 하나님의 자기 전달을 통해 사랑의 관계는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과의 사귀를 풍요롭게 일구어 가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을 본성으로 하시며 또 구현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몰트만의 생각도 주목할 만하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관계성에도 영향 받지 않거나 관계나 공동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유아독존적 존재라면 자신을 전달하실 필요도 없고 타자를 사랑하거나 타자와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 아니라 사랑 받으시는 존재라는 것이다.<sup>20)</sup> 사랑하시고 또 사랑 받으시며 친밀한 사귀를 이루는 것, 이것은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본성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도, 하나님은 타자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사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사랑의 대상으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또 그 대상과의 친밀한 사귀를 원하시는 것이다.<sup>21)</sup>

몰트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 일방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부터의 응답을 원하시며 또 친밀한 사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시며 상함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sup>22)</sup> 이런 맥락에서 몰트만은 하나님의

18) 위의 책, 138.

19)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Zur Gotteslehre*, 김관진 역,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론적 신론을 위하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78.

20) 위의 책.

21) 위의 책, 80-81.

22) Jürgen Moltmann,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리스도교적 신학의 근거와 비판으로서의 예수의 십자가』, 287-88.

창조와 신적 사랑을 연결한다. 창조는 신적 사랑의 행위이다. 몰트만에 따르면, 창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당하는 사랑’이며 이 사랑은 “자기 제한과 자기 자신의 철회, 자기 낮추심”을 동반한다.<sup>23)</sup>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스스로 창조자가 되시기로 결정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기 자신을 전달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여시고 나누시며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시기로 하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을 향한 창조를 행하신다. 어거스틴 이래로 기독교 신학은 창조를 하나님 ‘밖’을 향한 신적 행위로 이해했다.<sup>24)</sup>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긴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밖’이 존재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닌 말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몰트만은 하나님의 자기 제한에서 그 답을 찾는다. 하나님이 스스로 한계를 선택하심으로 창조를 행하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스스로를 제한하심으로 창조를 위한 ‘밖’을 하나님 안에 마련하셨다는 것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밖에 있는 세계와 세계의 존재들을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부정함으로써 곧 신적 무한성을 유보하심으로써 창조를 위한 공간을 자기 자신 안에 마련하셨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제한을 통해 무로부터의 창조를 위한 ‘무’를 생성하신다.

창조를 위한 자기 제한과 비움의 사랑은 구원에도 해당된다.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부분적으로 부정하심으로 창조를 위한 무를 마련하신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죽음에 스스로를 내어 주신다. 다시 말해,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뿐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와 피조물들을 죄와 악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원

23) Jürgen Moltmann,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론적 신론을 위하여』, 80.

24) 위의 책, 135-36.

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 파괴하는 ‘무’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파괴하는 무에 스스로를 내어주시지만 자신의 현재로써 채우신다. 그 현재는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비우고 희생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음에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바로서의 사랑의 현재인 것이다.<sup>25)</sup>

하나님은 자기 제한과 비움 그리고 희생으로 세계와 세계의 존재들을 위해 고난당하심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데, 여기서 극심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 일방향적 헌신으로 머물지 않고 친밀한 사귄이라는 결실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몰트만은 밝힌다. “고난을 통하여 자유롭게 하고 구원하는 그의 사랑은 그의 복된 사랑 가운데에서 성취되고자 한다. 사랑은 사랑받는 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며 영원히 자기 안에 가질 때만이 행복하게 된다.”<sup>26)</sup> 몰트만은 창조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고난과 인간의 하나님 고난에의 동참을 연결한다. “하나님만이 세계와 함께, 세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된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몰트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사랑의 사귄은 “서로를 위한 공동의 고난과 서로를 위한 공동의 사랑”을 통해 형성되고 또 강화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7)</sup>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몰트만은 이 ‘사귄’은 세계와 세계의 존재들을 위해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고난과 인간의 고난이 만나는 공동의 고난의 현장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역설한다.<sup>28)</sup>

25) Jürgen Moltmann,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생태학적 창조론』, 117-18.

26) Jürgen Moltmann,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론적 신론을 위하여』, 81.

27) 위의 책.

몰트만은 하나님을 사랑함의 중요한 방식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찬양이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직접 뵈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신적 ‘광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하나님을 직접 목도했음에도 생명을 보존하는 이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귄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고 몰트만은 강조한다.<sup>29)</sup> 따라서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에 들어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광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힘이 아니라 은혜의 원천이 된다. 곧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재적 형태”인 것이다.<sup>30)</sup>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부름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 헌신한다. 요컨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사귄 속에 있는 이들은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sup>31)</sup>

#### 4. 생명에 대한 사랑

몰트만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사랑의 삶에서 경험하는 결핍은 궁극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결핍’이라고 주장한다. 몰트만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의 경험은 매우 특수한 영적 경험이 되는데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사랑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sup>32)</sup> 여기서 그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과 생명

28) 위의 책.

29) Jürgen Moltmann,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적 차원의 그리스도론』, 283-84.

30) 위의 책.

31) 위의 책,

32) Jürgen Moltmann, *Der Gott der Liebe und der Gerechtigkeit*, 김균진 역, 『사랑과

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가?<sup>33)</sup>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계시지만 동시에 초월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 영역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과 깊고 친밀한 사랑으로 연결되시고자 하신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지진이나 대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비극적 인류사의 경험 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molt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부재’에서 답을 찾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의 부재 그리고 인간 편에서의 결핍이 생명에 대한 경시로 이어진다는 점을 밝힌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경험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34)</sup>

하나님은 성자 예수의 파송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결정적으로 드러내시고 또 경험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결핍, 질병이나 굶주림과 같은 삶의 질고, 역사적 정치사회적 불의, 죽음이라는 운명 등으로 고통당하는 인류와 세계와 역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와 하나님 나라 구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시는데 이 사랑은 앞서 행하는 선재적(zuvorkommende) 사랑이다.”<sup>35)</sup> 이 사랑을 위해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궁극적 사랑을 드러낸다. 사랑하기 위해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며

정의의 하나님』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14), 22.

33) 위의 책.

34) 위의 책.

35) 위의 책, 23.

그 고난을 통해 결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점에는 예수의 수난의 역사가 서 있고, 그의 수난의 중심점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의 하나님 경험이 서 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부르짖음과 함께 돌아가셨다.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자신 안에 받아들인다. 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롬 8:23) 얼핏 보기에 이것은 매우 잔인하게 보인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가 “아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그토록 친밀하게 불렀던 하나님도 고난당하신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속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함께 당하신다. 예수의 수난은 하나님 자신을 사로잡는다. 이리하여 그의 수난은 하나님 자신의 수난이 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희생적 헌신 속에서 아버지의 헌신을 본다. 예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sup>36)</sup>

우리는 여기서 몰트만이 적시하는 대로 ‘가장 깊은 사랑’을 만난다.<sup>37)</sup> 타자를 위해 생명을 바친다면 그것보다 큰 사랑은 없다는 성경의 말씀은 진실이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며 또 이 사랑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부활은 새 창조의

36) 위의 책, 23-24.

37) 위의 책, 25.

능력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다. 신앙의 사람들은 이제 부활의 영으로 사로잡힌 존재들로서 그 생명의 능력을 깊고도 깊은 사랑 안에서 참되게 이해하고 또 실제적으로 살아내도록 부름 받는다. “새로운 생명을 이 사멸하는 세상 속으로 [가져오시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누리고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sup>38)</sup>

이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몰트만은 생명에 대한 사랑을 핵심적으로 제시한다. “생명, 곧 이웃의 생명, 공동의 생명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한다. 개인의 생명, 사회적 생명 그리고 정치적인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생명을 거룩하게 한다.”<sup>39)</sup> 생명은 분명히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의 수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특별히 동료 생명들이 경시되고 부정되며 또 무참히 짓밟히는 생명의 위기 앞에서 생명에 대한 사랑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친 것이 아닐 것이다. 동료 생명을 아무런 가책 없이 참혹하게 짓밟는 극단적 폭력의 위협에 저항하여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몰트만은 권고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생명에 대한 긍정이 절실하다고 몰트만은 밝힌다. 생명이 부정되는 현실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 근거한 생명 긍정은 자명한 책무라고 할 것이다. 부모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이들의 긍정 가운데 성장한 아이들이 자신의 생명과 다른 동료 생명들을 긍정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증언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수용과 긍정 그리고 가치의 존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 거부와 부정 그리고 모욕을 경험

---

38) 위의 책, 26.

39) 위의 책, 29.

할 때, 우리는 소극적으로 되고 고독해지며 비참해지며 병들게 된다.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을 생명력 있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지 않도록 만드는 자기 의식을 우리에게 주신다.”<sup>40)</sup>

또한 몰트만은 ‘공동의 생명에 대한 참여’에 관해 중요하게 논한다. 동료 생명에 참여할 때 생명은 확장된다는 것이다. 동료 생명을 긍정하고 더욱 풍성한 생명이 되도록 사랑으로 참여하면 동료 생명에 기여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더욱 성장·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이 몰트만의 생각이다. 반대의 경우도 자명하다. 다른 생명에 무관심하면 참여가 부재하게 될 것이고 참여의 부재는 생명들을 무감각에 빠지게 할 것이며 무감각은 곧 ‘죽음에 이르는 병’과 다름 아니라고 몰트만은 강조한다.<sup>41)</sup>

공동의 생명의 창출과 보존과 확장을 위해 사랑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사랑의 궁극적 결실은 친밀한 사귀의 공동체이며 공동의 생명은 이 사귀의 공동체의 형성과 직결되어 있다.<sup>42)</sup> 몰트만은 이를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와 연관하여 설명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근본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사귀의 공동체를 통한 공동의 생명의 창출·확장에 있다고

40) 위의 책, 30.

41) 위의 책.

42) 몰트만은 『희망의 윤리』에서 ‘무기력에서 공동체로의 전향을 제안하며 사랑의 공동체의 정치사회적 구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빈부의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은 바로 공동체이다. 서로가 긴밀하게 결속하는 연대(연대)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은 부요해지는데, 곧 관계, 형제와 자매, 친구와 이웃, 동지와 동료에 대해 부요해지고 신뢰에 있어서도 부요해진다. 이러한 연대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스스로를 도울(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존재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 능력, 수단 등은 우리 모두를 위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착취하고자 하는 이들에게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찾게 될 것이다.” Jürgen Moltmann, 『희망의 윤리』, 133.

강조한다. “빈곤에 대한 대안은 부(富)가 아니다. 부와 가난에 대한 대안은 사권의 공동체이다. 가난을 공동으로 짊어진다면, 우리는 가난 속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전쟁 이후 굶주림의 시대에 독일과 한국에서 경험하였다. 사회가 불의할 때, 가난은 고통으로 느껴진다. 부자들이 사권의 공동체를 해약하는 일을 저지를 때,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일어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서로 도와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다른 사람은 패배함으로써 평등이 깨어지면, 상호 간의 도움은 끝나게 된다.”<sup>43)</sup> 여기서 공동의 생명은 자연적 생태적 생명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생명을 포함하며 사권의 공동체는 생태적 공동체는 물론이고 공적·정치사회적 공동체도 포함한다는 점을 밝혀 두어야 하겠다. 몰트만은 경제적 양극화와 같은 공동의 생명을 파괴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사권의 공동체를 정치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모색하면서, 사권의 공동체는 ‘자발적 연대 공동체’이며 ‘사회적 정의의 속에서[의] 사회의 내적 단결’이라고 강조한다. 자발적 연대가 현실화되는 현장에서 공동의 생명의 결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견지하며 몰트만은 구체적 제안을 덧붙인다. “실제로 도움을 주는 모든 단체, 이를테면 유치원, 이웃돕기(두레모임), 가난한 자 돌보기(극빈자 돕기), 환자간호, 생명구조, 이외에도 많은 시민단체는 위로부터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층(바닥)에 있는 자발적 공동체로부터 생겨났다.”<sup>44)</sup> 아울러 몰트만에 따르면, 사권의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공공선을 지향하며 내적으로 단결하면서 공동의 생명의 필수적 기반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정책적 제도적 차원에서 ‘생존의 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들 곧 의료보험, 사회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은 복지제도 그리

43) Jürgen Moltmann,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32.

44) Jürgen Moltmann, 『희망의 윤리』, 134.

고 이러한 제도의 재정적 토대가 되는 ‘정의로운 조세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sup>45)</sup>

특히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의 생명을 논하면서, 몰트만은 핵 위기에 대한 공동의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핵 위기는 한순간에 전체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이면서 종말론적인 문제이다. 온 세계와 세계의 구성원들이 절박함을 가지고 응답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한다. 핵 위기의 극복과 인류 생명의 보존은 “집단적 행동의 주체로 조직할 때만이 오로지 생각될 수 있는 일”이라고 몰트만은 역설한다. “인류의 연합만이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며, 모든 개개인의 생존은 인류의 연합을 전제로 한다. 핵의 위협에 직면한 시대 속에서 모두의 생명을 구하는 인류의 연합은 국가들의 개별적(지엽적) 관심사를 상대화시키고,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들을 민주화시키며, 다양한 종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생명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 아래 모든 것을 예측시킬(생명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를 가장 중요시 할-역자 주) 것을 촉구한다.”<sup>46)</sup>

기독교 공동체는 자발적 연대로 형성된 사립의 공동체의 중요한 본보기이자 역사적 실례라고 할 것이다. 기독교회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도 충실히 이행해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과 가르침에 따라 온전한 자매 형제 공동체를 추구해 왔고 또 주목할 만한 결실을 맺어 왔다. 대표적인 보기가 바로 사도행전 4장이 증언하는 오순절 공동체이다. 치열한 경쟁과 경쟁에서의 승패를 정상적 질서로 치켜세우고 이를 침예하게 몰아붙이는 현실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소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어떤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가? 몰트만은 ‘상호 신뢰의 장소, 인정과 사랑의

45) Jürgen Moltmann,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32.

46) Jürgen Moltmann, 『희망의 윤리』, 131-32.

장소'를 일구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sup>47)</sup> 기독교 공동체는 친밀한 사귀를 통한 사랑의 실재로서의 공동체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더 이상 부(부)나 가난, 능력이나 장애에 따라 인격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인간적 존엄성이 존중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혹은 “자매”로서 환영받고 영접된다. 또한 기독교 공동체는 상호 간의 도움의 구심점이 된다. 고독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본향을 발견한다. 현대의 경쟁사회는 사람들을 개체화시키는 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람들을 결합시킨다. 이 공동체는 사회적 사랑의 실재(Realität)이다.”<sup>48)</sup>

### III. 몰트만의 평화윤리를 위한 규범적 함의

#### 1. 이타적 자기희생과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 그리고 평화를 위한 혁명적 전환

앞에서 본 대로, 몰트만에 따르면 태초의 창조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을 무에 내어 주신다. 여기는 무는 상대적 무가 아니라 절대적 무이다. 존재의 부정의 무이고 무의 부정은 존재이기에, 무로부터의 창조로서의 태초의 창조에 있어 무는 절대적 무이어야 하고 절대적 무는 절대적 존재 곧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부정되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은 존재 전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분적으로 부정하십시오. 창조를 위한 무(혹은 공간)를 마련하신다.<sup>49)</sup> 창조 안에서 세계와 세

47) 위의 책, 32-33.

48) 위의 책, 33.

49) Jürgen Moltmann,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론적 신론을 위하여』, 135-36.

계의 존재들을 위해 자기를 무에 내어주는 자기 제한의 사랑, 자기 비움의 사랑을 발견한다. 이 사랑은 성자 예수의 구원을 위한 여정에서도 탐지된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다. 빌립보서의 증언대로(2장),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다. ‘케노시스’ 기독교론이 여기에 있다. 자기를 비우고 유한한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을 결정적으로 이기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것이다. 구원을 위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도 우리는 자기 비움의 사랑, 자기 제한의 사랑을 뚜렷하게 만날 수 있다.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무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주고 스스로를 제한함으로 창조의 공간을 마련하시면서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비움과 희생을 통해 새 창조를 완수하시는 성자 예수의 케노시스의 사랑과 유비(연속성)를 가진다.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랑과 평화를 가르치시고 또 실천하셨다고 강조한다. ‘완전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핀 대로,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이상을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은 타자를 위한 온전한 자기희생 그리고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이다. 사랑의 이상 곧 완전한 사랑의 규범적 이상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그 이상을 구현하신다. 이 완전한 사랑을 실천할 때 완전한 평화가 있다는 것이 몰트만이 증언하는 예수의 평화윤리의 요체이다. 이타적 자기희생을 동반하는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을 온전히 구현할 때, 극단의 증오와 폭력과 분열도 극복하고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원수는 적대적 관계를 상징하고 폭력 사용이 정당화되는 대상이지만 예수의 사랑의 윤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고상한 우정의 관계를 이룰 것을 명령하는데, 이 명령을 수행할 때 온전한 평화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도무지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과도 참된 사림과 공존의 관계를 이루어야 하지만 여기서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웃카(Gene Outka)의 개념으로 자격심사를 뛰어넘어 모든 존재를 도무지 축소할 수 없는 꼭 찬 가치의 존재로 또 다른 어떤 존재에도 환원하거나 환치할 수 없는 독보적 가치의 존재로 가치 인식하면서 ‘모두’를 사랑하되,<sup>50)</sup> 사랑은 정의를 소홀히 여기지도, 무력화하지도 않는다. 순전한 이타적 사랑으로 사랑하고 평화의 관계를 확고하게 추구하지만 정의를 배제한 사랑과 평화가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서 칭의에 대한 몰트만의 새로운 해석을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으로 칭의는 법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 하는 구원의 사건이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과 칭의의 대상이 되는 대상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본질적으로 내포한다. 몰트만은 칭의 교리를 정의의 관점을 중시하면서 구조적 제도적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한다. 불의한 구조적 제도적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은 피해자이고 이러한 피해를 유발한 이들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이다. 기독교의 칭의는 피해자가 회복되고 가해자가 참회하고 실질적으로 대가를 치름으로써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의의 역사도 중요하게 내포한다는 것이 몰트만의 생각이다. 다만 여기서 정의의 추구하고 실천은 본질적으로 사랑을 밑바탕에 둔다.<sup>51)</sup> 가해자를 심판하고 배제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 회복과 개선이 발생하고 피해자

50) Gene Outka, "Agapeistic Ethics," in *A Companion to Philosophy of Religion*, eds. Philip Quinn and Charles Taliaferro (Oxford: Blackwell, 1997), 482-84.

51) Jürgen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Eine ganzheitliche Pneumatologie*, trans. Margaret Kohl, *The Spirit of Life: A Universal Affirm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128. "이러한 상이한 요소들칭의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은 서로 보완적으로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기에, 구체적으로 정의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또 불의한 이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와 평화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는 사랑의 일인 것이다.

## 2. 생태적 차원의 평화윤리

앞에서 본 대로, 몰트만은 신적 생명과 창조성을 동일시하는 신학적 입장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하는데, 이러한 동일시는 창조자와 피조물을 범신론적으로 동일시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둘 사이의 동일시도 경계하지만 엄격한 구분(혹은 분리)도 경계한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 그리고 세계 안의 존재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세계에 대해 넘어서 있으며 내재하여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절대적 주권자로서의 힘과 권위를 초월적으로 구현하려 한다는 신론적 이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동일시와 엄격한 구분을 동시에 경계하는 몰트만은 사킴(코이노니아)의 개념을 통해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세계와 세계의 존재들을 깊은 사랑으로 섭리하시며 친밀한 사킴의 관계를 이루시길 열망하시고 또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킴에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사랑을 나누시는데, 이 신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과 사역에 참여케 하신다. 범재신론의 개념은 세계와 세계의 모든 존재 안에서 들어오셔서 섭리하실 뿐 아니라 깊은 사킴을 이루시고 궁극적 완성을 향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내포한다. 사랑의 생태적 확장을 뚜렷하게 탐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오직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깊은 들어와 함께 거하시고 친밀한 사킴 곧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다.<sup>52)</sup>

52) 몰트만의 생태 신학과 윤리에 관해 다음의 문헌에서도 다루었는데, 본 논문의 목적에 맞추어 다시 전개하였음을 밝힌다. 이창호, 『생태신학과 기독교윤리 실천』 (서울: 장로

여기서 몰트만의 ‘오늘을 위한 성화’의 개념을 살피는 것은 유익하다. 전통적으로 성화 교리가 개인 신자의 도덕적 변화 곧 성령의 역사 안에서의 거룩한 변화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늘을 위한 성화’론은 개인 신자뿐 아니라 전체 창조의 지평과 세계의 모든 생명들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까지 포괄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성화뿐 아니라 전체 세계의 성화를 위해 부름 받았다는 점 또한 역설한다. 오늘을 위한 성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반생명에 대한 저항, 생명들에 대한 경외와 존중 그리고 생명성의 신장, 생명들 간의 공존과 조화 등의 생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sup>53)</sup> 생명 세계의 모든 존재들 사이의 사귄과 공존을 위한 연대와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성화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미 거룩하게 하신 인격의 선성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신자들에 의한 삶의 성화는 하나님께 상응하는 생명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로써 목적이 분명해진다. 인간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화목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의 화목과 같이 간다. 그리하여 생명 자체에 대한 경외와 더불어 간다.”<sup>54)</sup>

기독교 신학이 생태계에 책임적인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몰트만은 대표적 생태윤리의 유형을 제시하며 자신의 입장을 전개한다. 첫째, 생명경외 윤리이다. 슈바이처(Albert Schweizer)에 기원이 있는 것으로,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가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우위를 말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 슈바이처의 생각인 것이다. 다만 몰트만은 살려는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고 또 인간이 생명세계의 회복과 성장을

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4), 31-37, 111-14, 282-85.

53) Jürgen Moltmann, *The Spirit of Life: A Universal Affirmation*, 171-73.

54) 위의 책, 164.

위한 특수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슈바이처가 여전히 인간중심적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지에 대해 비평적 평가를 내놓는다.<sup>55)</sup> 둘째, 환경윤리이다. 몰트만은 독일 환경윤리의 시원격으로 알폰스 아우어(A. Auer)를 언급하며, 이 유형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위계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인간만이 자연의 의미를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한 점에서 인간중심성을 내포한다고 평가한다.<sup>56)</sup> 셋째, 동료세계의 윤리이다. 몰트만에 따르면, 대표적 옹호자는 클라우스 미하엘 마이어-아비히(K. M. Meyer-Abich)이다. 환경(Umwelt)이라는 용어보다는 동료세계(Mitwelt)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는데, 전자는 인간을 중심으로 다른 존재들이 둘러싼 구도를 내포한다면 후자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모든 자연의 존재들이 함께 동등한 지위로 공존하고 연대하는 구도를 본성으로 한다. 후자의 인식론적 근거는 자연이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고유한 가치와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마이어-아비히는 인간은 인간이 아닌 동료 존재들과 진정성 있게 자연적 소통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참된 인간상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sup>57)</sup>

몰트만의 유형은 창조윤리이다. 몰트만은 세계의 중심은 인간도, 자연도,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의 존재들이 동료 관계를 형성하여 친밀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역설한다. 성서적 근거로서 노아 계약을 제시하는데, 이에 관한 몰트만의 해석을 옮긴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 권리는 ‘우리와의’ 계약으로부터, 장차 올 세대들의 권리는 ‘우리와의 후손들’과의 계약으로부터, 자연의 기본 권리는 ‘우리와의 후손들, 모

55) Jürgen Moltmann, 『희망의 윤리』, 254-56.

56) 위의 책, 256-57.

57) 위의 책, 257-58.

든 살아 있는 생물들'과의 계약으로부터 온다. 창조자이시며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현재 세대와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들, 모든 살아 있는 생물은 그들 모두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계약의 동반자들이며 동일한 존엄성과 권리의 소유자들이다. 다른 생물들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며, 또한 인간은 단순히 자연의 일부분이 아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계약의 동반자이며, 이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 상호 간에 생명을 장려하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삶을 지탱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sup>58)</sup> 여기서 몰트만은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가 위아래나 중심-주변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 유기체적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세계상을 내포하는 생태윤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윤리가 반영하는 생명세계는 세계의 존재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친밀한 사귄과 평화로운 공존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세계인 것이다.

### 3. 공동체지향적 총체적 평화의 모색

몰트만은 하나님은 세계와 세계의 모든 존재들을 ‘가장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보았다. 타자에 대한 깊은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에서 분명히 드러난 대로 생명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 주며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이다. 사랑의 대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가 포함되며, 인간이 이루어가는 문명적 결실과 다양한 형태의 역사적 공동체들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사랑에 응답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동료 인간뿐 아니라 인간이 아닌 동료 존재들을 동등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개별 존재를 사랑할 때 생태 공동체나 정치사회 공동체를 포괄하는 관점

58) 위의 책, 259.

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개별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 모두에서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채우시고자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생애 공동체와 역사적 정치사회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 사이에 ‘살림’의 공동체 곧 참된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명과 살림의 역사를 고난 받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몰트만의 생각임을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공동의 생명’의 인식과 실천의 강화에 대한 몰트만의 강조는 주목할 만하다. 자연적 생명과 정치사회적 생명을 포괄하는 공동의 생명을 위한 헌신은 총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명의 보존과 진작을 위해 개인적 노력은 물론이고 제도와 체제 그리고 구조의 개선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몰트만은 총체적 차원에서 전체 세계 가운데 살림을 구현하기 위한 개인적 공동체적 헌신과 이를 위한 사명과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명의 공동체’와 ‘자발적 연대’의 구체적 역사적 전형으로서 기독교회는 공동의 생명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타자와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이타적 헌신,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공존과 연대의 증진, 자연적 정치사회적 생명 공동체의 성숙을 위한 사랑의 책임을 위해 부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살림의 공동체의 건설과 진전은 바로 기독교회의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 IV. 나가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과 삶의 모범에 근거하여 몰트만은 이타적 자기희생과 무저항 비폭력의 사랑을 옹호하는 평화주의적 기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대상범위의 보편성 등을 규범적 요체로 하는 사랑과

평화의 윤리를 전개한다. 아울러 창조의 지평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뿐 아니라 온 세계와 모든 피조물들도 포함하는데, 사랑의 생태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몰트만은 기독교 사랑의 규범적 보편성을 심화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며 이 점에서 그의 평화윤리가 갖는 총체성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다.

몰트만의 삼위일체적 접근도 주목할 만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사랑의 모범으로 삼을 때 친밀한 사귀음 궁극적 이상으로 삼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것이 몰트만의 생각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재적으로 온전한 일치를 이루시며 경세적으로 세계의 존재들과 깊은 사귀음의 관계를 추구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타적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랑의 사귀음과 공동체를 지향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몰트만 윤리의 중점은 사귀음이다. 사귀음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자 평화의 관계와 공동체의 요체이다. 친밀한 사귀음이 이루어질 때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진 관계와 공동체에 다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특별히 몰트만은 사귀음의 대상범위를 인간과 인간 공동체를 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 사이의 관계로 확장하며 정치사회적 영역까지도 포괄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대로, 몰트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코이노니아’(사귀음)를 강조하면서, 둘 사이의 엄격한 분리와 차이를 허용하지 않는 동일시 모두를 극복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코이노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과 본성을 나누신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을 견지하면서 몰트만은 하나님의 ‘나누심’에 근거하여 사랑의 행위자로서 인간은 적절한 역량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을 밝힌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규범적 이상으로 삼고 그 이상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도덕적 역량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가지게 됨으로써 사랑과 평화를 일구는 삶이 패배주의적 경향으로 빠지지 않는 데 의미 있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몰트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피조물들과의 사귀를 이루고자 하신다고 강조함을 보았다. 하나님의 범재신론적 세계 임재에 대해 논하는데, 지으신 만물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내재론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귀의 논지를 뒷받침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와 세계의 존재들의 고통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중요한 하나님 사랑의 길로 제시함을 보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하나가 될 여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몰트만은 둘 사이의 구분을 빼놓지 않음으로써 균형을 맞춘다.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방식이 남아 있다. 그것은 찬양이다. 찬양을 통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점을 생각할 때, 몰트만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인간을 사랑함의 적절한 구분을 존중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동일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한편으로 둘 사이에 견지되어야 할 구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둘 사이의 구분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삶에 있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지점임을 몰트만은 분명히 한다.

## 참고문헌

- 이창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그 같음과 다름에 관한 신학적·윤리적 연구: 민중신학, 칼 바르트, 위르겐 몰트만 신학에 대한 윤리적 분석과 비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2 (2011), 265-301.
- \_\_\_\_\_. 『사랑의 윤리: 사랑에 관한 신학적 윤리적 탐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 \_\_\_\_\_. 『생태신학과 기독교윤리 실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4.
- Moltmann, Jürgen, *Theologie der Hoffnung*. 전경연·박봉배 역. 『희망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_\_\_\_\_. *Der gekreuzigte Gott: das Kreuz Christi als Grund und Kritik christlicher Theologie*. 김균진 역.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리스도교적 신학의 근거와 비판으로서의 예수의 십자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 \_\_\_\_\_. *Trinität und Reich Gottes: Zur Gotteslehre*. 김균진 역.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론적 신론을 위하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_\_\_\_\_. *Gott in der Schöpfung: Ökologische Schöpfungslehre*. 김균진 역.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생태학적 창조론』.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_\_\_\_\_. *Der Geist des Lebens: Eine ganzheitliche Pneumatologie*. Translated by Margaret Kohl, *The Spirit of Life: A Universal Affirm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 \_\_\_\_\_. *Der Geist des Lebens: Eine ganzheitliche Pneumatologie*. 김균진 역. 『생명의 영: 총체적 성령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_\_\_\_\_. *Das Kommen Gottes: Christliche Eschatologie*. Translated by Margaret Kohl, *The Coming of God: Christian Eschat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 \_\_\_\_\_. *Gott im Projekt der modernen Welt*. 광미숙 역.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신학의 정립을 지향하며』. 서울: 동연, 2009.
- \_\_\_\_\_. *Ethik der Hoffnung*. 광혜원 역. 『희망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_\_\_\_\_. *Der Gott der Liebe und der Gerechtigkeit*, 김균진 역,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14

\_\_\_\_\_. *Der Weg Jesu Christi: Christologie in messianischen Dimensionen*. 김  
균진·김명용 역.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적 차원의 그리스도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Outka, Gene. "Agapeistic Ethics." In *A Companion to Philosophy of Religion*.  
Edited by Philip Quinn and Charles Taliaferro. Oxford: Blackwell, 1997.

논문투고일: 2025년 02월 27일

심사개시일: 2025년 03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04월 12일

---

• 국 문 소 록 •

---

몰트만은 사랑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논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재적 경제적 이해, 하나님을 사랑함의 방식 등에 대해 주목한다. 몰트만의 평화윤리는 그의 사랑의 윤리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규범적으로 후자는 평화윤리의 핵심적 토대가 된다.

사랑의 온전한 실천은 평화의 공동체로 귀결되고 사랑의 생태적 확장은 생태적 평화 구현에 본질적이며 자연적 정치사회적 생명에 대한 사랑은 총체적 평화 이해의 초석이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에서 몰트만의 사랑의 윤리를 모색하고 그것으로부터 그의 평화윤리를 위한 규범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위르겐 몰트만, 사랑의 윤리, 평화윤리, 신학, 기독교윤리

---